

제주민속박물관의 소장자료와 그 가치

진 성 기*

I. 머 리 말

세계적으로 특유한 민속을 지니고 내려온 고장, 우리 제주도에 제주민속 박물관이 세워진지도 벌써 20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오직 사라져가는 민속유물이요,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날로 없어져만 가는 민속유물이어서 이를 수집하고 지키는 일만이 시급한 일이라 생각하고 박물관이란 건물이나 공간이란 마련할 힘이 없음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오직 맘과 노력만으로 민속유물을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셋집 뜰에 쌓아놓고 출발한 것이 오늘의 「제주민속박물관」이다.

이러는 가운데도, 한 때는 도와주신다는 독지가가 나타나 고맙게도 건물까지 마련하여 주어서 썩 훌륭한 것은 아니면서도 그런대로 민속박물관 행세가 되다가 그 집마저 헐리게 되자 이번에는 비록 초라하게라도 내 독자적인 박물관 건물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오늘의 제주도립민속자연사박물관 자리에 적수공권으로 박물관을 짓고 옮기려하였던 것인데, 이번에는 그 헐리게 된 건물의 주인인 독지가가 독자적으로 나갈 수 없다. 하여 그만 손을 툫툫 털고 나왔던 것이다.

거기에서 다시 민속유물을 수집하기 반 년 만에 오늘의 제주도민속자연사 박물관 자리에 새로 세워 놓은 박물관에 전시하는 데는 그리 부끄럽지 않을 만치의 작품을 수집 전시할 수가 있어서 한숨을 내리 쉴 수 있었던 것이다.

* 제주민속박물관장 (민속학)

그런데 이번에야 말로 더욱 큰 시련이 들이닥쳤다.

다름이 아닌, 이 자리에 도립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을 지을 터이니 뜰어
나가라는 제주도지사로부터의 청천벽력과도 같은 통지를 받았던 것이다.

아뭏든 이러한 가시밭길, 눈물겨운 역정을 거쳐 제주민속박물관은 1979년
6월 22일 오늘의 위치 제주시 삼양삼동 2505번지에 새로운 모습으로 세워진
것이다.

다시 누구가 와서 뜰어 나가라고 쫓아 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로되 이러
한 고난의 역경속에도 올해로서 개관 20년을 마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나는 신화, 전설, 민요, 속담, 지명, 무가, 수수께끼, 금지어, 구
비 등의 민속학적 자료와 민속유물을 수집하기에 골몰하면서도 『탐라의 신
화』 등 제주민속에 관한 저서도 17권을 출판, 우리 제주도의 민속을 알고자
하는 분들 앞에 바쳐 온 터이지만 이제는 뒤물러서 조용히 제주민속박물관
의 위치를 성찰하여 보고자 한다.

제주민속박물관에 수집 소장되고 있는 민속유물이란 어떤 것들이며, 그 유
물들을 이 박물관에서는 어떻게 분류하고 있으며, 이 민속유물이란 어떠한
기능, 어떠한 가치가 있으며, 오늘 제주도의 도정목표가 관광개발에 있거니
와 이 박물관이 관광자원이란 차원에서는 어떠한 값어치가 있느냐는 등이
박물관이 지닌 현상을 겸허한 자세로 돌아보고자 한다.

이는 제주민속박물관을 찾아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친절한 안내서가 되
고자 함임은 물론, 제주민속박물관을 찾아오실 기회가 없었던 분들에게도
제주민속박물관의 면모를 보여드리고자 함이다.

제주민속박물관에 소장된 민속유물들은 우리 조상들의 넋이 스민 소중한
생활유물들이며 민속을 아끼는 오늘의 겨레의 정성에 의하여 이러한 유물들
은 지켜져 나가게 될 것은 물론, 날이 갈 수록 빛과 향기를 더해 가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제주민속박물관의 오늘날까지의 고난은 그날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II. 박물관과 민속유물

“민속유물”이란 선조들이 일상생활이나 집안 살림에 쓰다가 오늘에 남겨진 모든 물품을 가리킨다. 일상생활에서 필요를 느껴 조상들이 만들어 쓰던 생활기구 일체를 통털어 말하는 것이 된다.

제주도의 민속유물이란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성에서 선조들의 오랜생활의 슬기에서 만들어진 이 지방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향토적 생활도구를 뜻하게 된다.

이렇듯 민속유물은 우리 조상들이 써오다가 오늘에 남겨진 유물이기에 그 유품들마다 쓰였던 시기와 장소가 제각기 있었을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기에 민속유물들은 제마다 그 쓰였던 장소 곧 조상인 도민들의 생활의 현장에 자리잡고 있어야 하고 오늘의 우리로서는 조상들의 생활의 현장이었던 그 자리에 가 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마는 사회가 발전하다보니 그 곳이 변모함과 동시에 사람들도 바뀌게 되고 따라서 새 사람들은 새 물품을 쓰며 유물을 버리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 유물들은 그 놓일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제주민속박물관에서는 놓여질 자리를 잃고 만 그것을 모아다가 보존하게 되었다.

민속학자나 관광객들이 제주도의 민속 유물을 보기위해서는 제주도의 구석구석마다 돌아다녀야 볼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제주민속박물관에 찾아가기만 하면 한 눈에 볼 수 있으니 그만큼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롭고도 편리하게 되었다.

그러기로 관람하는 이들은 제주민속박물관에서 그 유물 하나 하나를 감상할 때는 그 유물들의 본디의 시대와 환경 그리고 옛적의 생활상을 생각하면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 제주민속박물관을 중요시하는 데는 이 박물관에는 우리 겨레의 역사와 전통이 간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날의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알아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발전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여기서의 역사와 전통이란 조상들의 숨결과 슬기 그리고 넉을 뜻하며 이것을 우리는 제주민속박물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민족의 역사와 전통의 뿌리를 찾자는 것은 미개사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역사와 전통을 알자는 것이며, 역사와 전통을 모르고서 어떠한 문물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설이란 마치 모래위의 성이나 마 찬가지다.

역사와 전통의 귀중성을 알면서도 우리의 현실은 서구 사회화로 변모해 가는 것처럼, 우리는 역사와 전통이 무시당하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킬지 모르나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인간과 인간과의 만남우리 혈통과 혈통의 이어짐, 재래의 전통적인 생활을 확인해 보자. 모인조밥에 자리젓을 먹어보고 보리밥에 콩늬쌈을 먹어보아야 우리는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가 초라하다고 길가던 멧쟁이 신사를 아버지라 하여 따라 갈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우리 겨레와 함께 우리 고유의 풍속과 생활은 있게 마련인 것이다.

외국에 간 이라면 그 나라 그 민족의 민속과 접촉하게 될 터이지만, 그러면 그럴 수록 우리의 민속을 그림계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민족의 민속을 보고 우리의 민속과 다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이들이 귀국했을 때 우리의 민속이 더욱 귀중함을 느낄 것이요. 그래서 그 이들은 우리의 민속을 더욱 보존하게 될 것이다.

참된 애국이란 것도 민족의 역사와 전통 위에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요, 역사와 전통을 무시한 나라의 발전이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 향토의 역사와 전통을 되살려 새로운 문물을 받아드려야 비로소 그 나라 그 사회는 발전한다.

그 향토를 발전시키려면 그 고장의 역사와 전통을 찾아야 한다. 그 고장의 역사와 전통을 찾자면 그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그 향토인이나 국민의 신

화, 전설, 민요, 구비 등을 찾아내는 것인데, 이러한 구비, 민속들은 향토인 또는 국민의 역사와 전통을 찾는 작업의 제일 보가 되는 것이다.

민요 한 수, 유물 한 점에도 우리의 진정한 역사와 전통은 깃들어 있는 것이니, 이 속에서 조상의 숨결과 슬기, 그리고 넋을 찾아내고 역사와 전통을 배워야 한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배우기 위해 외국의 민속박물관에 가셔도 되겠는가? 그것은 우리 겨레의 민속박물관에 가야만 배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역사와 전통은 제주민속박물관에 가야만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역사와 전통의 주인공이었던 조상들의 삶의 증거와 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민속박물관에서 보는 유품은 육지부 박물관에서 보는 상류 계급층의 화려하고도 고급스런 것과는 달리 투박하고 서민적인 것이 특징이다. 그것은 제주도가 파랑거친 대양으로 둘러싸여 있고 높은 한라산의 기슭에서 떨어져 살 수 없는 농민과 어민의 오랜 전통의 때가 묻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시장통 도자기점에서 보는 반질 반질한 빛깔과는 달리 이 제주민속박물관의 유물에서 보는 검으며더한 때는 더러운 때가 아니고 귀중한 조상의 체온인 것이다.

이 조상의 때가 묻은 체온이 없어졌을 때, 벌써 그 유물은 생명을 잃고 마는 것이다.

Ⅲ. 민속유물의 분류

나는 앞에서 “민속유물”이란 조상들의 숨결과 슬기, 그리고 넋이 배어 있는 역사와 전통의 예술품이라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정신문화의 소산으로써 민속유물이 나타나게 된 것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기계문명의 영향을 받지 않은 향토적 전통적 소박성을 지닌 생활용품을 말하는 것이다.

제주민속박물관 개관 22주년을 맞아 그간 소장된 3,000여점의 민속유물을 중심으로 분류를 시도해 보려는 것이다. 이제 이 민속박물관에 소장된 민속

유물의 분류를 해볼 때 그내용을 크게는 1. 기본생활에 관한 용구, 2. 생업 생활에 관한 용구, 3. 신앙생활에 관한 용구, 4. 관혼상제에 관한 용구, 5. 유희에 관한 용구, 6. 기타 용구등으로 나눌 수가 있겠다.

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게 될 것이다.



위표의 분류에 따라 이제 그 소제목별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본생활에 관한 용구

의식주에 불안이 없을 때 사람은 가장 선량하며 평화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먹고, 입고, 자는, 세가지는 인간생활의 삼대 기본요소인 것이다. 그러나 예로부터 우리 인간은 보다 잘 입기 위하여, 보다 잘 먹기 위하여, 그리고 보다 잘 살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니 그 흔적이 민속유물에서도 잘 나타나 주고 있다. 보다 좋은 옷과 음식, 그리고 집의 생활용구를 (1) 의생활구(衣生活具) (2) 식생활구(食生活具) (3) 주생활구(住生活具) 등 세가지로 나누어 보기로 하겠다. 여기에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생활상의 문명의 이기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1) 의생활구 : 의생활구에서 의류(衣類), 신발, 장신구, 생산육아육구가 다 포함된다. 그 대표적인 몇 가지만을 들어보겠다. 가죽감태, 털벌림, 정당 벌림, 가죽옷, 갈옷, 좁세기, 우장, 소증기, 붓디창옷, 초신, 남신, 가죽신 바지, 저고리, 허리띠, 대님, 행진, 가죽보선, 버선, 토시, 조끼, 장갑, 마고자, 두루마기, 모자, 갓, 망건, 목도리, 치마, 책보, 손수건, 사모, 관대, 상복, 가위, 바늘, 인두, 인두판, 실꾸리, 자, 주머니, 바늘상자, 다리미, 참빗, 열레빗, 비녀, 땡기, 기저귀, 포대기, 나무욕조, 솜, 실 등등으로서 대체로 의생활에 관한 것들을 가리키게 된다.

(2) 식생활구 : 식생활구에는 조리구(調理具)와 음식용구가 포함된다. 그 대표적인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남비, 접녕, 주걱, 칼, 도마, 국자, 바가지, 물통, 절구절구공이, 체, 푸는체, 식기(食器), 찻그릇, 골연마는틀 떡본, 담배상자, 돛그릇, 사기그릇, 김칫항아리, 장독, 단지, 식료품, 곰박배수기

(3) 주생활구 : 주생활구에는 가구(家具)와 등화용구(燈火用具)가 포함됨은 물론이다. 그 대표적인 내용을 들면 다음과 같다. 궤(옷장), 살레(찬장), 침구, 빗자루, 책상, 밥상, 옷걸이, 바늘, 부삽, 숟가락, 의복, 집안기구, 보존용구(保存用具), 등잔, 호롱, 촛대, 부싯돌, 화로, 관솔, 해심(미심) 불켜는기구등등으로서 가구와 등화용구를 비롯해서 집안살림살이와 직접 관계 되는 것들을 뜻한다.

2. 생업생활에 관한 용구

생업생활이란 자연과 인적 자원 그리고 밀천등의 생산요소를 접붙이하여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경제적 효용을 창조하거나 증가시키는 일련의 용구를 말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인간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물품으로서 생활상의 유용성의 창조나 증대를 가져오는 생산생업에 대한 모든 용구를 가리킨다. 그 내용을 보면 (4) 문사용구(文士用具), (5) 농업용구(農業用具), (6) 수산업구(水產業具), (7) 목석공구(木石工具), (8) 상행위구(商行爲具)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다시 내용별로 보면 다음과 같

다 하겠다.

(4) **문사용구** : 연상, 필묵통, 연갑, 붓판, 모살판, 붓, 물붓, 벼루, 먹, 붓통, 편지함, 책갑, 종이, 종이함, 천제도, 천상도, 천하도, 초상화 등등으로서 글공부와 관계깊은 선비들의 용구를 가리키는 것이 된다.

(5) **농업용구** : 쟁이, 삽, 쟁기, 방따비, 호미, 낫, 진호미, 부그리글갱이, 질매, 정개호미, 셋대배기, 부개기, 남태, 돌태, 쇠스랑, 맷방석, 기타 수확에 쓰이는 기구 등등으로 농사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용구를 가리킨다.

(6) **수산업구** : 낚시, 태왁, 빛창, 눈, 망시리, 줄나시, 족바지, 자리뜨는 그물, 갈둥이 등등으로서 해업과 관계 깊은 잠수어부들의 용구를 말한다.

(7) **목석공구** : 끌, 막개, 징, 매, 톱, 송곳, 뼈빠, 민어풀, 대패 등등으로서 여기서는 목공과 석공이 두루 쓰는 용구를 말한다.

(8) **상행위구** : 저울, 산대, 되, 말, 흙, 도장, 지갑, 돈궤.

3. 신앙생활에 관한 용구

제주도민의 민속에 있어서 고대로 어떠한 신앙을 가졌으며, 그 결과 어떠한 종교에 귀의했는가? 또 그로 말미암아 한 영적인 생활의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초자연적인 절대자요, 신앙대상에 대한 신앙인 자신이 두려워하고 멀리하고자 하는 한편에서는 모셔 받드는 상반된 종교적 심성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무속신앙(巫俗信仰)과 불교(佛敎) 그리고 유교(儒敎)등의 복잡다양한 신앙 형태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9) **무구(巫具)** : 징(釘), 북(鼓), 장고(枚鼓), 설쇠(뿔과리), 울쇠, 요령(搖鈴), 국적짓, 명도, 산판, 바랑(낫사발뚜껑), 호장삼퇴송배, 마누라배송상, 무신도, 무신상 등등으로서 무속제의(굿)때 쓰여지는 무속용구 일체를 통털어 하는 말이다.

(10) **불구(佛具)** : 탕화(幀畵), 목탁, 염주, 토불, 경상, 부적 등등으로서 불교의식(佛敎依式)과 관계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11) **유구(儒具)** : 강묘, 효계충신 그림병풍, 혼백상, 도식(圖式 : 風水地

理書), 그밖에 유교의식에 쓰이는 모든 물품을 말한다.

4. 관혼상제에 관한 용구

“관혼상제”(冠婚喪祭)란 관례(冠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써 이를 보통 사례(四禮)라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 “관례”는 원래 남자가 스무살이 되면 어른이 된다 하여 갖을 쓰게 하던 유교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후 조혼(早婚)하는 풍습이 성행하게 됨에 따라 관례와 혼례가 겹쳐져, 관례는 생략되고 위 두 가지 의식이 합해진 입장례(入丈禮)로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혼례속에 관례를 생각할 수 밖에 없겠다.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2) 혼구(婚具) : 쪽도리, 기러기, 가매, 패물함.

(13) 상구(喪具) : 두건, 상복, 건대, 짝동, 방장대, 화단(상예) 등등으로서 초상때 쓰이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14) 제구(祭具) : 강신잔, 낭정반, 유건, 젓상을 비롯한 제기(祭器)

5. 유희에 관한 용구

유희(遊戲)란 한마디로 재미있게 놀며 즐거움을 누리는 놀이를 뜻한다. 따라서 이와같은 놀이에는 어린이의 놀이와 어른의 놀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놀이에는 노래와 여러가지 기구가 따를 수 있다.

특히 어른의 놀이의 생활의 반복스런 어린이의 놀이와도 달리 직업에 종사하는 틈을 타서 여가선용의 뜻도 담겨 있으며 그래서 어른들은 이러한 놀이에서 노동으로 쌓였던 피로를 풀며 새로운 힘까지도 얻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뜻에서 볼 때 여기서의 유희에는 (15) 아동유희구(兒童遊戲具)와 (16) 성인유희구(成人遊戲具), 그리고 (17) 음악유희구(音樂娛樂具)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그 내용을 보기로 하겠다.

(15) 아동유희구(兒童遊戲具) : 차대, 고누말 공기돌, 모래주머니, 줄넘기줄, 방차기돌, 제기, 그밖에 어린이 놀이에 필요로하는 모든 것을 통틀어 말한다.

(16) 성인유희구(成人遊戯具) : 윗가락, 화투, 투전, 골패, 장기, 바둑, 농악에 소요되는 물품, 활 등등으로서 어른의 놀이에 쓰이는 모든 것을 뜻한다.

(17) 음악오락구(音樂娛樂具) : 허벅, 장단용 허벅, 살장귀, 율북, 통수, 피리 등등으로서 어른들의 놀이때 쓰이는 모든 악기류를 말한다.

이상에서 필자는 제주도라는 특정한 지역사회에 한정시켜 제주도민이 옛부터 농, 어촌에서 써 내려오는 민속적, 향토적, 전통적인 유물들을 일괄 정리 분류해 본 셈이다. 이것은 또한 상류 계급층의 귀족적이며 화려한 유물에 비해 서민적이며, 대중적이며, 그만큼 유물 하나 하나가 투박함은 물론, 그 대부분의 재료에 있어서도 금속이나 석기나 도자기로 된 것 보다는 나무, 풀 등의 성질로 이루어진, 곧 식물성 재료의 유품이 많음을 그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귀족적인 것을 배제했거나 금속이나 도자기나 식기류를 도의시한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제주도민의 생활 내면에는 본디 한라산이라는 대자연의 품속에서 그 생활근거를 찾아왔었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앞의 민속유물분류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제주도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 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판단하고 판단에 따라 행동했던 원시적인 손작업의 형태에서 향상의 방향으로 기술을 익히며 작품화하고 최저의 도구로써 최대의 다목적으로 활용한 문화생활의 원소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IV. 박물관의 기능

나는 앞에서 제주도민속학의 실증적인 산 자료를 제공해 주며 민속연구의 과학적 체계를 세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제주민속박물관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제주민속박물관의 자료수집과 그 내용은 어떠한가? 비록 도시에서는 이미 그 내용이 사라진 민속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시골 깊숙한 곳에서는 그 기능이 살아 움직이는 것도 있음을 볼 때, 민속자료수집은 역시 시골로 가야 할 것이다.

시골로 가서 수집하는 민속자료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몇 가지 유의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은 있는 것이다. 그 유의 해야 될 사항이 바로 민속자료수집의 방법이 된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기본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깊숙한 농어촌에서 수집하는 태와, 남태, 쌍따비 같은 민속 유물을 대할 때 이것을 그 제작법과 사용법은 물론 그것의 부분적인 명칭에 이르기까지도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대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1) 서로 같은 종류의 민속유물을 그 모양, 구조, 명칭, 사용법, 제작법, 시대, 기능 등의 여러가지 각도에서 기록하고 비교 고찰하는 방법이다.

(2) 농촌과 어촌, 그리고 동쪽마을과 서쪽마을 등의 구분을 짓고 그 어느 한 지방을 대표할 만한 마을을 선정하여 그 마을의 민속유물을 가능한 한 수집, 기록해냄으로써 그 지방의 생산, 생업과 생활용구로서의 민속유물의 상태와 기능을 알아내는 방법이다.

(3) 농어촌이나 등, 서촌의 마을별로 각각 어느 대표적인 한 마을을 선정한 다음 그 가운데서 가장 표본적인 한 집을 선정해서 그 집에 보존하고 있는 민속유물을 가능한 한 수집 기록해냄으로써 가구당 생산, 생업과 문화생활용구로서의 민속유물의 상태를 저울질해내는 방법이다.

(4) 민속유물 가운데는 시대가 바뀔에 따라 쓰는 사람들의 생활이 달라지고 따라서 민속유물 자체에도 실용성이 상실되어 그 사회에서 이미 그 실체를 볼 수 없으면서도 그림이나 사진 그밖의 설명으로 짐작되는 것들도 있게 된다. 이럴 경우 그 모양이나 구조, 또는 사용법과 제작법을 비롯하여 기능면이 촌로들의 기억으로 되살려 낼 수 있는 것도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도 기록으로 되살려내어야 한다. 이런 경우 민속유물은 현재 남아있지 않으나 촌로들의 머리속에 잠재해 있으므로 해서 이를 되살려내었을 때 이는 또한 후세에 전해 주고 있는 결과가 된다.

이와같은 민속유물의 수집방법에는 다시 그 기록해 두는 방법이 또한 중요하다 하겠다. 아무리 귀한 민속유물을 수집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평범한 물건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

서 실례를 들어보겠다.

하나의 민속유물을 두고도 그 기록해 두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일곱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1) 명칭 : 그 민속유물의 이름은 무엇이며 다른 이름이나 부분적인 이름은 어떠한가를 기록한다.

(2) 시기 : 그 민속유물은 언제 수집했는가? 몇 년도 어느 때 어떤 분으로부터 수집했는가? 그 때는 어느 계절이었으며 그 유물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던가를 기록한다.

(3) 수집지 : 수집장소는 어디인가? 어째서 그런 민속유물이 그 지방에서 쓰게 되었는지도 살필 필요가 있다.

(4) 제작지 : 그 민속유물을 만들어낸 곳은 어디인가? 그 유물을 사용하는 사람들 자체에서 만들어 쓴 작품인가 아니면 조상 때부터 물려 내려 받은 유품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어디서 구입했으며, 그 값은 얼마나 들었는가를 기록한다. 여기에는 어떤 경로와 방법으로 이 곳에까지 흘러왔는가를 기록하는 것이다.

(5) 재료 : 그 민속유물의 재료는 무엇이며 그 재료는 어디서 난 것인가? 그리고 그 재료를 써서 만든 솜씨는 정교한가 소홀한가를 기록한다.

(6) 사용범위 : 그 민속유물은 무엇을 할 때 사용되며 그 곳 사람들의 생활에 많이 사용하는가 일부 사용하는가? 또는 어떠한 특수층에서만 특수한 경우에만 쓰고 있는 유품인가도 기록한다.

(7) 보관장소 : 그 민속유물의 보관장소는 어떠한 곳인가를 기록해야 한다. 하나의 민속유물은 그 집안의 환경 조건 그밖의 형태에 따라 어느 곳에 두던 거기에 그만한 까닭이 뒤따르고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그 유물을 보관하는데 있어서의 민간신앙과 온도와 습기와 공기의 유통을 비롯하여 과학적인 처리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도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하나의 민속유물을 두고서도 어째서 그 집안에서는 그 유품을 그러한 장소에 보관해 두지 않으면 안되는가를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그밖에 민속유물을 사진을 찍는다면 비디오를 통해 그 유물의 기능면을

붙잡아두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복잡하나마 문장으로 써서 기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말하기는 쉽지만 사실 농어촌에 가 보관해 둔 민속유물을 들추어내고 기록하고 정리한 다음 원상태로 해 두고 돌아온다는 일은 너무도 벅찬 힘이 든다. 쟁기 한가지를 두고 보더라도 오양간에서 마당으로 꺼내고 조립하고 기록하여 자빠지지 않게 똑 바로 세워 잡아 사진을 찍고나면 다시 원상태로 해 놓아야 한다.

이처럼 농어촌에 가 민속유물을 수집하며 느껴지는 것이지만 그 대부분의 것은 농어촌 촌로들이 직접 필요에 의해 만들어 쓴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가끔 대장간에서 호미같은 것을 제작하듯 그 제작의 전문화된 것도 없는 바는 아니나. 그 대부분은 자가생산적인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분업화 이전의 경제사정을 설명해 주는 좋은 표본으로도 생각된다.

이렇듯 민속유물은 농어민의 일상생활속에서 생산과 생업을 위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 그 일부는 지금도 사용하는 하나의 민속문화제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제주도의 민속유물을 조사, 수집, 기록, 연구를 함으로써 이 속에서 태고로부터 제주도민의 생활에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왔고 또 어떠한 생활로 오늘이 있으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의 생활상의 슬기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의 민속의 현상에서도 과거를 배우고 현재를 알며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다시 넓게 말한다면 이 제주민속박물관의 민속유물을 통해 우리 인류의 과거를 비춰보는 작업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민속유물의 조사 연구의 대상으로는 귀족층의 화려하거나 희귀한 것보다는 서민 대중층의 보편화된 것에서 보다 그 본질적인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서게 되는 것이다.

서구화된 문화시민의 제삿상차림에서 보다 서민의 민간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본향당 당신(堂神)의 제물상차림에서 우리는 보다 고대적이며, 인간생활의 근본적인 생생한 생활문화의 모습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민속유물 가운데는 쇠붙이나 돌, 그리고 흙으로 만든 것들도 있으

나 역시 도민생활의 중심적인 용구로는 체, 푸는체, 술단지를 비롯하여 그 대부분은 부개기(씨앗주머니), 우장, 정당벌립, 대패랭이 남신 등등으로 볼 수 있듯이, 풀이나 나무로 만든 제품이 많은 것으로써, 식물성 물질로 된 것 들임을 볼 때, 이는 제주도민속유물의 특질이라 할 것이다.

이 민속유물의 만듦새나 구조, 또는 그 모양에 있어서 시대가 바뀔에 따라 다소 그 역사적 전통적인 면에서 다르게 되었다고 보일지 모르나, 그 전체적인 근본 틀에는 흔들림이 없는 것이요, 그 내면의 슬기로운 창조력이나 대대로 서민생활에서 대물림해 왔다는 데에 그 뜻이 큰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민속유물은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은 사람들의 창조력에 의한 슬기의 결정체이기도 한 것이다. 이들 민속유물이 현재의 모양과 구조를 이루어지게 된 데에는 서민 대중의 오랜 생활속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동안 많은 경험 위에서 깎이고 다듬어진 것으로써 이는 또한 전승민속예술품이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민속유물이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 온 전승민속예술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연구하고 이웃나라의 민속과 비교연구함으로써 이 민속유물이 지니는 특징, 지리적분포, 시대를 비롯하여 같은 특징이라면 어떠한 기원으로 전파되었는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동질의 현상인가를 알 수 있으며, 아울러 그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민속유물의 연구는 민속과학으로써 고고학, 인류학, 비교민속학 그밖의 인접과학과 연관되는 학문으로써 특히 고고학에는 일찍부터 그 발굴품과 벽화등이 유물에서 오늘날의 민속유물과의 비교연구를 하고 그 모양, 구조, 용도, 사용법, 분포등을 비롯한 민속생활을 추정해내는 열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민속유물은 그 많은 사회에서 사용되어 온 동질적인 기능과 요소에서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모되어 온 상황을 밝혀내어야 하며, 그 발생, 변천, 발달에의 범칙등도 알아내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의 민속유물은 그 민족 서민대중의 생산 생업과 관련된 사고생활의 소산이요, 이로써 그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알 수 있으리라는 것은 너무나

도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제주민속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는 3,000여점의 민속유물은 옛 탐라 이 섬나라의 전승민속에숯품으로서의 그 역사적 발달과정이나 그 전파의 계통을 비롯, 그밖의 많은 문제를 밝혀낼 수 있는 증표가 될 것은 물론 인류문화사의 해명에도 크게 기여하는 나침판이라 할 것이다.

V. 박물관과 관광자원

향토민속 한 가지를 지키는데 있어서는 도립박물관도 있을 수 있고 사설 박물관도 있게 마련이나, 제주도 행정당국으로서의 운영에 산만을 제외하고는 이를 육성하는 면에서나 이를 관광자원화하는 방법에 있어서나 양자를 꼭 같이 배려하여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사실 제주민속박물관은 그 동안 온갖 어려움을 무릅써 가면서 향토민속의 발굴 보존 연구를 하여온 지 올해가 그 2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사실 제주민속박물관을 창설 운영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지금 도립박물관과 비교하거나 그 불행했던 이 박물관의 과거를 여기서 들추자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모든 지나간 일들을 잊고 관과 민이 합심해서 향토제주의 민속의 꽃을 피우기에 매진할 때라는 뜻을 말하려는 것이다.

제주민속박물관 창설 22주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였으니 박물관의 강산은 두 번이나 변한 것이다. 그만큼 성장의 세월이 지나간 것이다.

이제까지는 제주도의 역사와 전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회교육의 산 교육장 구실을 해왔지만 이제는 도립박물관이 지어지기 시작하자 이 도립박물관이 이루어지기도 전부터 앞질러 이 민속박물관을 관광코스에서 제외시켜버리는 바람에 그 전과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이 도립박물관 하나만으로 이 고장의 정통문화 보존의 일을 다 해낼 수만 있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화계의 보존정책이란 개성적이요 분산적인 것이 원칙이요, 또 이를 내외에 선양하는 데도 개성적이고 분산적이어야 이

상적인 것이다.

사설민속박물관도 도립자연사박물관과 같이 같은 방향의 향토민속 발굴 보존 선양에 있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끌어주며 박물관끼리 대립이 아닌, 서로가 상부상조요 보완의 관계에 있도록 해야 함은 너무나도 분명한 상식인 것이다.

크던 작던 사실 제주민속박물관도 도립자연사박물관과 같이 향토민속문화제를 가꾸어나갈 공동의 책임과 임무가 두 어깨에 걸려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블행했던 과거를 씻어버리고 관광정책상의 향토민속문화제로서 어느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도민의 공동문화책임을 깨닫게 할 양식과 슬기가 아쉽기만 하다.

참 고 문 헌

- 진성기; 「제주도민속유물」, 제주민속박물관, 1965. 4. 20.
 ———; 「제주민속의 멋」, (1), (2) 열화당, 1979. 12. 30.
 ———; 「사설박물관도 관광자원, 관광객 유치위해 정책배려돼야」, 조선일보, 1984. 6. 23.
 학원사; 「원색 세계백과대사전」, (8). 1973. 12. 1
 온양민속박물관편; 「도설 한국의 민속」, 계몽사, 1980. 1. 20.
 장주근; 「구미박물관순례기」, 경기어문학 제 1집, 1980. 12. 20.
 이난영; 「박물관입문」, 삼화출판사, 1981. 3. 30.